



(양현종)

호랑이, 인천 짝고 대구... ‘원정 빅매치’

강적 SK와 시즌 첫 대결, 삼성과는 리턴매치

양현종·최희섭 부활이 6연전 승수쌓기 관건

공포의 원정 6연전이 호랑이를 기다린다. KIA 타이거즈가 이번주 ‘강적’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결을 위해 원정 6연전에 나선다. 변함없는 우승후보 SK는 김광현·윤길현·채병용·전병두 등 마운드 자원들의 대거 이탈속에서도 개막 이후 4승2패를 거두며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두 팀간 전적은 10승2무7패로 KIA가 다소 앞서있지만 두 팀은 늘 만만치 않은 승부를 벌였다. 시즌 중반 이틀 연속 12회 연장승부를 벌이기도 했던 양팀은 한국시리즈에서도 7차전 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첨예한 대립구도를 세웠다. 2009 한국시리즈 승자와 패자로 다시 만나게 되는 KIA와 SK는 첫 대결에서 두 좌완 양현종과 고효준을 승부사로 내세웠다. 양현종은 한국시리즈와 한·일 클럽챔피언십 등 큰 무대에 오르며 부쩍 물이 올랐지만 첫 등판기록은 좋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삼성과의 홈경기에 출전한 양현종은 4회 갑작스런 제구 난조 속에 4개의 피안타와 3개의 볼넷을 내주며 6실점으로 무너졌다. 팀은 필승카드 양현종의 붕괴로 3연패에 빠졌다. 첫 출격에서 좌완 에이스의 자존심을 구겼던 양현종은 SK를 상대로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고효준은 시즌 개막 이후 벌써 4번째 등판이다. 지난달 28일 한화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던 고효준은 라이벌 두산과의 주말 3연전 중 두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2일 중간계투로 등판했던 고효준은 3일에는 마무리로 나서 세이브를 하나 기록했다. 이틀 휴식 후 다시 선발로 등판하는 만큼 SK 선발 고효준의 초반 공략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승패의 관건. 타자들의 움직임이 문학 관중석 표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SK 입장에서든 방망이에 승부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다. KIA는 4일 롯데와의 연장 12회까지 가는

대결에서 12개의 안타를 가지고 2점을 만드는데 그치며 4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SK도 두산 선발 이재우의 호투에 발이 묶이며 단 2개의 안타를 신고하는 데 그쳤다. KIA에게는 최희섭의 부활이 시급하다. 최희섭은 스트라이크존 확대 여파와 맞물려 타격 리듬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5경기 타율이 0.100에 불과하고 삼진은 6개를 기록했다. 최희섭이 숨을 죽이면서 KIA 타선의 짜임새도 힘이 빠졌다. 특급 불펜진을 자랑하는 삼성과는 리턴매치. 지난주 광주에서 만났던 양팀은 우천으로 1경기가 취소되면서 1승1패를 주고 받았다. 허리싸움이 예상되는 삼성전 승리키는 투수 팽정철이 쥐고 있다. 지난해 선발진에서 중간으로 자리를 옮겼던 팽정철은 묵직한 직구와 슬라이더를 이용해 불펜의 중심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팽정철이 투구 밸런스와 릴리스

프로야구 중간순위		(5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두산	5	1	0	0.833	1승
2	SK	4	2	0	0.667	1패
3	넥센	4	2	0	0.667	1승
4	삼성	4	3	0	0.571	1승
5	KIA	3	4	0	0.429	1패
6	LG	2	4	0	0.333	1패
7	한화	2	4	0	0.333	1패
8	롯데	1	5	0	0.167	1승

포인트가 흔들리면서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개막 이후 4경기에 등판해 4와 3분의 1이닝동안 3실점하며 6.2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팽정철이 감을 찾지 못하면서 손영민·유동훈의 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과의 허리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팽정철의 자리잡기가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키스 박찬호 너무 긴장했나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우승 반지에 도전하는 박찬호(37·뉴욕 양키스)가 미국프로야구 공식 개막전부터 홈런을 얻어맞고 3실점해 패전 투수가 됐다.

박찬호는 5일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열린 2010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 개막전에서 7-5로 앞선 7회말 세 번

째 투수로 등판했지만 3분의2 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안타 3개를 허용하고 3실점(2자책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선발 C.C 사바시아, 데이비드 로버트슨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7회말 마운드에 오른 박찬호는 첫 타자 마르코 스쿠타로를 중전 안타로 내보내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미프로야구 개막전 등판

홈런 등 3실점 패전 멍에

박찬호는 제이코비 엘스베리를 3구 삼진으로 잡아내 한숨 돌렸지만, 다음 타자인 더스틴 페드로이아에게 왼쪽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얻어맞아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올 시즌 28번째 우승을 노리는 양키스는 ‘속적’ 보스턴에게 7-9으로 패해 개막전 승리를 험난했다.

/연합뉴스

김송희 ‘메이저 퀸’ 다음기회에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 3위... 청야니 우승

청야니(21·대만)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제패, 메이저대회에서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청야니는 5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6702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우승했다. 생애 첫 우승을 2008년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에서 따냈던 청야니는 메이저대회에서만 2승을 올려 ‘메이저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2008년 신인왕 청야니는 작년에 코닝글래스 정상에 올라 이번이 세 번째 우승이다. 올 시즌 열린 4개 LPGA 투어에서는 일본

의 미야자토 아이가 초반 2개를 석권한 데 이어 서희경과 청야니가 차례로 우승하며 아시아 선수들이 LPGA 투어를 휩쓸었다.

2라운드 단독 선두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김송희(22·하이트)는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줄이는데 그쳐 청야니에 4타 뒤진 공동 3위(합계 9언더파 279타)에 머물렀다.

‘골프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는 공동 5위(4언더파 284타)에 올랐고 2004년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인 박지은(31)은 공동 10위(2언더파 286타)를 차지해 오랜 슬럼프에서 탈출했다. 박인비(22·SK텔레콤)가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려 한국 선수 4명이 ‘톱 10’에 입성했다.

/연합뉴스



컨디션
좋았는데...

나비스코 5위 신지애 “드라이버샷 난조로 어려운 경기”

‘골프 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는 5일(한국시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 끝난 후 “이번 시즌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이날 마지막 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쳐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공동 5위를 기록하며 시즌 첫 메이저대회 ‘톱 10’에 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신지애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 자신이 있던 드라이버샷에 문제가 있어 어렵게 경기를 했지만 후반에 들어가면서 감각을 찾아 아쉽지만 좋은 마무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한 결과

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레나 오호아(멕시코)와의 세계 랭킹 경쟁에 대해서도 여유를 보였다.

신지애는 “세계 랭킹 1위는 생애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고 열심히 하면 그 부분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10위(2언더파 286타)를 차지해 오랜 슬럼프에서 탈출한 2004년 이 대회 우승자 박지은(31)은 경기 후 “어제까지 순조롭게 잘해 오늘 기대를 했는데 퍼팅감이 떨어져 7~8개 버디를 놓쳐 아쉽다”면서 “그러나 오랜만에 대회에 나와 이 정도 성적을 거둬 그대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GA 셀휴스턴, 연장 우승 ...통산 3승

자신감 갖고 다음주 ‘메이저 대회’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영건 대열의 선두 주자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앞두고 열린 셀휴스턴 오픈에서 우승하며 슬럼프 탈출을 알렸다.

재미교토 앤서니 김은 5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험블의 레드스톤 골프장 토너먼트 코스(파72·7457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셀휴스턴 오픈 마지막날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본 테일러(미국)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파를 지켜 승리를 낙았다. 상금은 104만4000달러.

2008년 5월 와코비아 챔피언십과 같은 해 7월 AT&T 내셔널에서 우승하며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뒤를이을 선수로 손꼽혔던 앤서니 김은 우승 가뭄을 해소하며 샷 감각이 살아났음을 알렸다.

앤서니 김은 어니 엘스, 필 미켈슨, 리 웨스트우드, 파드리크 헤링턴 등 강호들이 모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우즈까지 출전하는 마스터스대회를 앞두고 청신호를 켜다.

공동 선두로 출발한 앤서니 김은 17번홀

(파4)까지 테일러에 2타차로 앞서 우승을 낙관했지만 이번 주 내내 불안했던 티샷이 발목을 잡았다. 17번홀에서도 티샷을 페어웨이 왼쪽으로 보내 자원봉사자를 맞힌 앤서니 김은 다행히 이 홀에서 파로 막았지만 18번홀(파4)에서도 티샷과 두번째 샷이 모두 벙커에 빠져 위기를 맞았다.

테일러가 1타차로 쏜인 상태로 72홀 경기를 먼저 끝냈고 앤서니 김은 이 홀에서 2m짜리 파파트를 놓쳐 결국 연장전으로 끌려갔다. 18번홀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앤서니 김은 페어웨이와 그린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파를 잡았고 테일러는 보기를 적어냈다. 이미 마스터스 출전권을 갖고 있는 앤서니 김은 PGA 투어 통산 3승을 올렸지만 우승을 놓친 테일러는 마스터스 출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앤서니 김은 “내가 기대했던 게임을 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경기를 했고 결국 우승했다. 자신감을 갖고 다음 주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9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은 마지막날 2타를 줄여 공동 31위(3언더파 285타)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연합뉴스

우즈, 오거스타 골프장에 깜짝 등장

마스터스 앞두고 연습 라운드

성춘문 사건 이후 노출을 꺼렸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마스터스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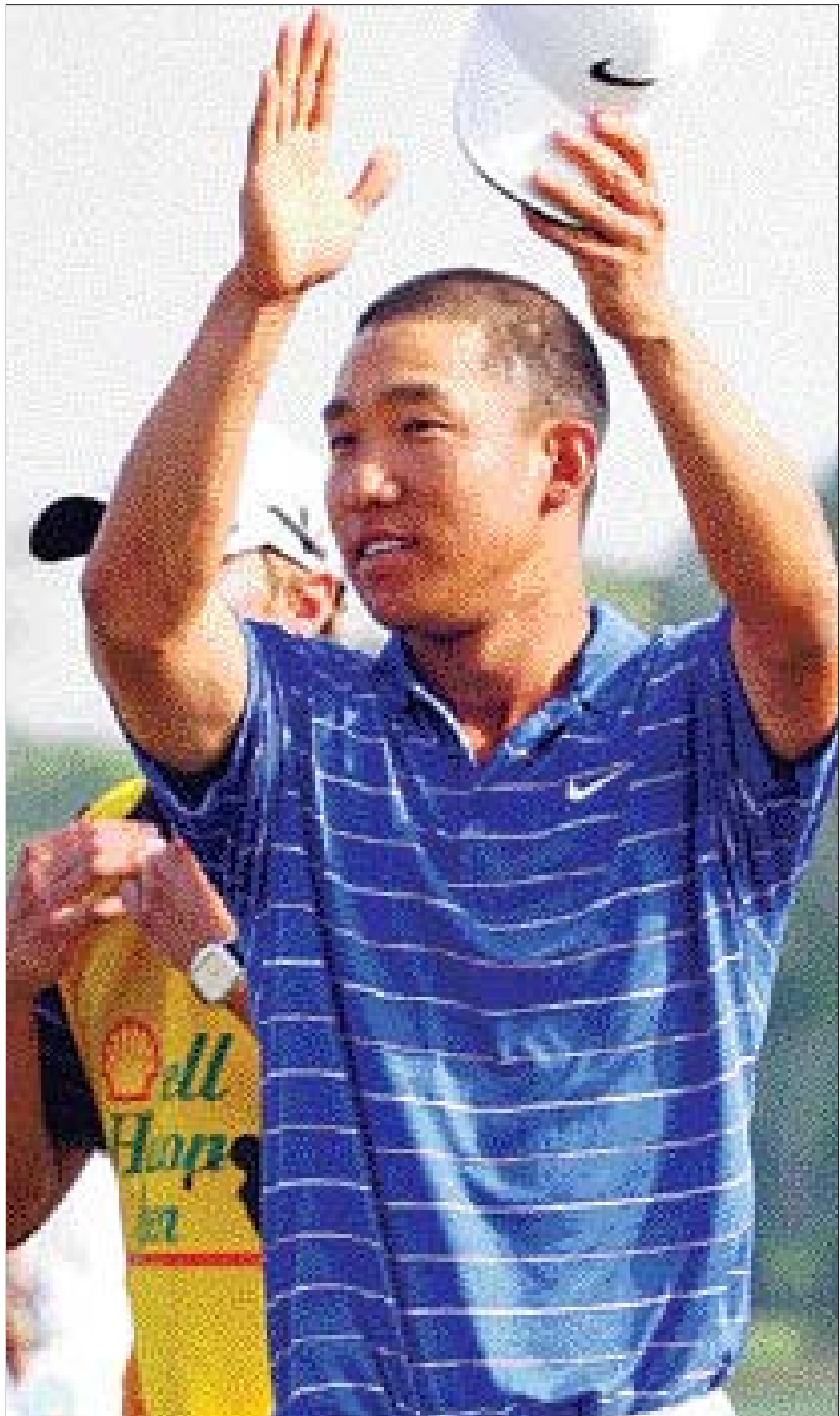
우즈는 8일(이하 한국시각) 개막하는 시즌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대회를 앞두고 5일 대회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대회를 앞두고 코스를 익히려고 나타난 우즈는 정선적인 스승 마크 오메라와 10번 홀부터 후반 9홀 연습 라운드를 몰았다. 캐디인 스티브 윌리엄스도 변함없이 우즈 옆을 지켰다.

연습 라운드에 앞서 우즈는 연습장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할 폴 케이지, 짐 퓨릭과 간단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이 5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험블의 레드스톤 골프장에서 열린 PGA 투어 셀휴스턴 오픈대회에서 우승한 후 두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